



▶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책 속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1.

이 책의 부록에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53년부터 1998년까지 공보실 산하 대한영화사, 국립영화제작소, 국립영상제작소에서 생산된 문화영화의 전체 목록을 수록하였습니다.

2.

영화제목, 해설 등에 나오는 사건, 정책 등의 용어는 기록물에 사용된 용어를 따랐습니다.

3.

2022년 11월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607편의 문화영화에 대한 원문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장 영상해설의 QR 코드를 통해 해당 영화의 영화보기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단, 추후 화면 URL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경우 홈페이지의 영화검색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사용권한은 국가기록원에 있으며, 내용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시대를 비추다

Our Story in the Culture Filmes

문화영화

## 발간사

1998년까지 극장에서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상영되었던 ‘문화영화’는 주로 교육이나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정부 주도로 기획·제작·배급·상영되었던 단편 영화입니다. 1950년대에는 공보실 영화과 산하의 대한영화사에서, 1961년부터는 국립영화제작소에서, 1994년부터는 국립영상제작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1950년 초부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는 50여 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생산된 문화영화는 그 수가 2,400여 편에 이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영화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시청각 기록물 중 가장 중요하고 흥미있는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문화영화, 시대를 비추다』는 가치 있는 영상사료인 문화영화가 보다 폭넓게 더 많은 사람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영화의 개념과 그것의 수용과 정착,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대표적인 작품을 영화 속 인물의 대사, 주요 장면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영화의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영화를 직접 보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QR코드를 통해 국가기록포털의 영화보기 화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언급된 영화 이외에 다른 영화가 궁금한 독자들은 부록으로 첨부된 국가기록원 소장 문화영화의 전체 목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책을 통해 함께 소개되는 여러 유형의 사진·문서 기록물(국립영화제작소 작업 모습, 영화제작 계획서, 제작구성안, 해설대본, 촬영 관련 협조문서, 제작완료보고서 등)은 영화의 제작 의도와 제작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문화영화를 통해 떠나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11월



국가기록원장